

한국경마 실태, 종주국 영국으로 역수출

경마 한류 본토 습격

유럽 4개국에 실태 중계 계약 체결
해외 매출만 629억원…수출국 확대
김낙순 마사회장 “세계시장서 인정”

한국경마 실태가 경마 종주국인 영국에 역수출된다.

한국마사회는 22일부터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4개국에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국경마 실태가 중계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미주시장 진출에 이은 쾌거다. 수출 계약 파트너는 현지 경주실태 전문 배급사인 SIS(Sports Information Services)다. 2015년말부터 2년 이상의 협의 끝에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100년 남짓한 경마 역사를 지닌 한국에서 17세기경 세계 최초로 경마 스포츠를 탄생시킨 영국으로 경마실태를 수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영국은 경마시행체 중 최고 레벨인 Part I 국가

로 경마장이 약 60개에 달할 정도로 경마가 국민적인 레저스포츠로 사랑받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2014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한국경마 실태의 해외수출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2017년까지 말레이시아, 프랑스, 호주, 홍콩, 마카오,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미주 4대륙으로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해 해외 매출액이 8개국 629억 원에 달했다. 이번 유럽지역의 계약으로 수출국은 12개로 늘어났다. 해외 유통채널을 넓히고 현지 마권매출을 통해 수익 창출효과도 누릴 수 있어 한국경마 콘텐츠 수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경마 종주국 영국까지 진출하게 된 것은 한국경마가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경마 선진국에 한국경마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지난 17일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18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에서 최시대 기수가 기승한 ‘월드선’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월드선’ 깜짝 우승…국산 3세마 혼돈의 시대

막판 폭발 질주…농림부장관배 우승
트리플크라운 시리즈 절대 강자 없어

경주마 월드선(3세, 수, 한국, R87)이 트리플크라운 시리즈의 마지막 관문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에서 깜짝 우승하며 최근 부진을 씻어냈다.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지난 17일 열린 제18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GⅡ, 제9경주, 2000m, 3세, 국OPEN)에서 월드선이 경주기록 2분10초4로 액톤블

레이드(3세, 수, 한국, R87)를 3위로 밀어내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최하위권에서 따라가다가 3코너부터 폭발적인 속도로 앞서있던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쳤다. 2위 샤프케이랜(3세, 수, 한국, R71)과도 1/2마신 차이였다.

국산 3세 최강마를 뽑는 올해 트리플크라운 시리즈 첫 경주인 KRA컵 마일(GⅡ)에서 디바이드윈드가, 두 번째 경주 코리안더비(GⅠ)에서 액톤블레이드가 우승한데 이어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GⅡ)를 월드선이 차지하며 세 경주 모두 다른 우승

자가 등장했다.

유일하게 세 경주 모두 3위 안에 든 액톤블레이드가 국산 3세 최강마 자리를 차지했지만, 앞으로 국산마 판도는 비슷한 실력마들의 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월드선에 기승한 최시대 기수는 “그동안 월드선이 능력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설욕할 수 있어 기쁘다. 경쟁자들이 쟁쟁했지만 경주마 상태가 좋아 처음부터 자신 있었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정용운 기자

‘말도 사람도 행복한 세상…’ 말복지 증진 가이드북 발간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말복지증진 가이드북(Ⅰ):말도 사람도 행복한 세상 만들기’(사진)를 발간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차원의 정책적 추진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타 산업동물의 복지에 비해 말복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

국내 유일의 말산업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는 동물복지 확산차원에서 말복지 수준을 점검하고,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건전한 마문화 형성을 위해 ‘2017년 말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적인 교육과 홍보, 관심 제고를 위해 ‘말복지증진 가이드북’ 책자를 발간했다. 동물복지 개념의 이해, 동물보호법의 필요성, 동물보호 정책, 말복지를 고려한 말 관리 기준, 꽃마차 관리기준, 국제기구의 복지 강령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말복지증진 가이드북’은 말산업 관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말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말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말복지 교육 및 홍보자료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말산업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초청세미나 실시 등을 통해 말복지가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말 복지와 관련해 한국마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말복지 증진 가이드북’ 발간은 말복지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한국-멕시코전…애국 베팅 vs 실리 베팅

〈월드컵 조별리그 F조 2차전〉

축구토트 매치 4회차 게임 발매
벼랑 끝 한국, 2차전 총력전 변수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트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트는 24일 러시아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열리는 2018러시아월드컵 조별예선 F조 2차전 한국(홈)-멕시코(원정)전을 대상으로 한 축구토트 매치 4회차 게임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월드컵 본선 첫 경기였던 스웨덴전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한 한국대표팀이 2차전에서 세계 최강 독일을 꺾은 이번의 주인공 멕시코를 만난다.

선전을 바라는 국내 축구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과 멕시코의 전력차이는 꽤 크다. 대다수 해외의 언론 또한 한국의 완패를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역대 월드컵 2차전에서 4무 5패의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한국팀의 승리를 기원하며 애국베팅을 하려는 국내 축구팬들이라면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리 베팅파’에게 변수는 양팀이 처한 상

황이다. 한국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대인 스웨덴에게 패한 반면, 멕시코는 가장 어려운 상대를 잡아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팀은 멕시코다. 만일 한국의 저돌적인 자세가 통한다면, 선취골은 한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국이 선취골을 허용할 경우 노련한 멕시코 선수들의 특성상 경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매치 게임의 경우 전반과 후반의 스코어를 맞춰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양팀의 상황과 전력을 면밀히 분석해 경주의 수를 파악한다면 적중률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이번 경기는 한국을 응원하는 애국 베팅파와 정확한 분석으로 적중을 노리는 실리 베팅파의 선택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차이가 나는 양팀이지만, 한국은 무조건 사력을 다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단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멕시코에 맞선다면 충분히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축구토트 매치 4회차 게임은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23일 저녁 9시50분까지 구매 가능하다.

야구팬 46% “불방망이 롯데, LG 잡는다”

야구토트 스페셜 65회차 중간 집계
LG 4~5점대-롯데 6~7점대 1순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트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트는 22일 열리는 2018시즌 한국프로야구(KBO) 프로야구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트 스페셜 65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참가자의 46.31%가 LG-롯데(1경기)전에서 원정팀 롯데의 우세를 예상했다고 21일 밝혔다.

LG 승리 예상은 38.89%를 기록했고, 양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4.80%로 나타났다. 최종 점수대 예상에서는 LG(4~5점)-롯데(6~7점)이 5.75%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LG(2~3점)-롯데(4~5점)이 5.70%, LG(4~5점)-롯데(4~5점)이 4.71%로 집계되었다.

Kt-SK(2경기)전에서는 홈팀 kt 승리 예상이 49.67%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어 SK 승리 예상(37.75%)과 양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12.61%)이 그 뒤를 이었다. 양팀의 최종 점수대 예측에서는 kt(6~7점)-SK(2~3점)이 4.86%로 최다를



기록했다.

마지막 넥센-KIA(3경기)전에서는 KIA 승리 예상(43.43%)과 넥센 승리 예상(43.16%)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SK 김광현과 뜻 깊은 시간 건전한 스포츠문화 캠페인

‘건전한 청소년 스포츠문화, 스포츠토트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트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트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SK 와이번스와 함께 ‘2018 스포츠토트 건전한 청소년 스포츠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롯데전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 이번 캠페인에는, SK 김광현의 모교인 안산공업고등학교 야구부 및 재학생 120여명이 함께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엔 초청된 안산공업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스포츠토트 건전한 청소년 스포츠문화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1루 매표소 앞 등 곳곳에서 야구장을 찾은 스포츠팬들을 대상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설문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불법스포츠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앞장섰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